

# Andrew Greenlee

## 앤드류 그린리(Andrew Greenlee)

앤드류 그린리는 현재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어바나 샴페인(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시카고(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택정책과 지역개발, 그리고 도시계획의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최근 주거이동성(Residential Mobility)과 미국의 주택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도시빈민 문제(Urban Poverty)와 주택파산 문제(Residential Foreclosure) 등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 이성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를 거쳐 현재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로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ning)과 통행행태(travel behavior)의 연계, 도시공간구조(urban spatial structure)의 변화에 따른 환경 및 지역경제 영향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sustainable urban form)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 박사논문 주제로 '도시공간구조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 김우락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도시설계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였고, 현재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진행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쇠퇴도시와 주택정책이다.

앤드류 그린리:

## 미국의 주택바우처 프로그램과 주거이동성

이성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

김우락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석사과정

▶ 이성원(이하 '이'): 먼저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교수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교수님의 연구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 앤드류 그린리(이하 '그린리'): 네, 저는 앤드류 그린리(Andrew Greenlee)라고 합니다. 현재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지 4년이 되었네요. 저는 시카고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도시 내의 사회적 단절과 인종차별, 그리고 도시빈곤 문제를 경험해왔고, 이러한 각종 도시문제들이 저에게 도시계획을 공부하게 만드는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시문제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그들의 삶의 방식과 직업 등에 미치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거환경과 개인의 주거이동 간 관계에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이 개인의 삶의 방식과 주거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특별히 주택정책이 저소득계층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집중해왔습니다. 주거이동성은 다른 일반가구들보다 저소득가구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거주지의 불균형이 또 다른 사회적 빈곤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의 연구가 더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도시주택정책이 사람들의 주거이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우락(이하 '김'):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학문적 모티브에 대한 자세한 말씀 감사합

*Andrew Greenlee:*

#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and the Mobility in the US

► **Sungwon Lee(hereafter 'Lee')**: *Thank you for your acceptance to this interview for the KRIHS magazine. Before discussing deep topics,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tell me about what led you to study urban planning?*

►► **Andrew Greenlee(hereafter 'Greenlee')**: My name is Andrew Greenlee and I am an assistance professor at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And I have been here for four years. I also grew up in the city of Chicago and became interested in urban planning through observations on segregation, racial inequality, and poverty within the city. That inspired me to start to look at how where people live influence their life chances and their abilities to do the things they want to do in life. That has been the focus of my research as an academic. A lot of my research looks at the connection between housing and neighborhoods and the individual life trajectories of people living in those neighborhoods. A lot of my work tries to connect housing policy at the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s to individual experiences and their everyday life. My interests in poverty also focus a lot on how these policies influence low-income households simply because the impact on life trajectory tends to be greater for low-income households, which cause more social problems of privilege and who have the money. Overall, I have interests in how the housing policy influence on the people's trajectories.

► **Woolack Kim(hereafter 'Kim')**: *Thank you for sharing your personal story and the motivation*

니다. 제 생각에는 교수님의 최근 연구들이 특별히 주택선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HCV) 프로그램과 그로 인한 정책 수혜자들의 주거이동성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HCV 프로그램과 교수님의 최근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그리리: 물론이죠, 주택선택바우처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HCV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전통적인 방식의 주택정책들과 다른 점은 저소득가구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유연성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 받는 저소득가구들은 일반 주택시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주거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이는 전통적 방식의 주택정책이 갖지 못했던 지리적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의 주택정책은 주거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곤의 집중화라든지, 사회적 차별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HCV는 주거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의 공급 위주 주택정책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의 연구는 사람들이 주거지를 이동함에 있어서 HCV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거환경의 변화가 주택 이외의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HCV로 인한 주거지 이동이 사람들의 직업과 구직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들의 자녀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등입니다.

미국 HCV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 살면서 주택바우처를 제공받고 있었는데, 워싱턴주의 시애틀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Chicago Housing Authority에서 제공 받던 주거비 보조를 시애틀에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제가 어느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느냐에 상관 없이 동일한 주거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존의 공공주택 프로그램에서는 제공되지 않던 것으로,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이동의 유연성은 HCV 프로그램이 현재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주택정책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직장이나 삶의 변화에 따라 주거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연성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기로 HCV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공급 위주의 공공주택과 같은 비이동성 프로그램을 앞질러 발전해왔으며,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이

*of the research interests. I think many of your recent researches are focusing on Housing Choice Voucher (HCV) program and the residential mobility of the voucher recipients. In order to provide more understanding to Korean readers, Can you explain the HCV program and your recent research?*

▶▶ **Greenlee:** Sure,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has grown to become the largest low-income housing subsidy in the US. It serves a little over 2 million households annually throughout the nation. Difference about the HCV program from the other traditional ways which we have subsidized housing is that it focuses on subsidizing low-income households who want to make their own housing choices and want to rent a housing in the private market. Traditionally, social housing in the US has focused on state owned and operated developments. However, the voucher program has focused on allowing people to shop for their own housing and subsidizing people at the places they want to live. Because the people can shop for their own housing, a big question within the program that my research focuses on is how people use housing vouchers to move and what are the types of moves that they made resulted in improvements in thing other than just housing conditions. A question like how does it effect on their ability to find better job, to raise their children, or to basically improve their life circumstances.

One of the unique things about the HCV in the US is that it is nationally affordable. For example, I received the voucher in Chicago. And I choose to move to Seattle, Washington. I can take my voucher with me and move from Chicago and the local housing authority, Chicago Housing Authority, and take that same voucher to Washington and keep my saving benefits that I have in terms of housing while I move. So the nice thing about the program is staying with the individual no matter where they choose to move unlike a public housing or social housing unit where if you leave that unit, you are out of the program and you lose the support. So the voucher program is becoming used more recently due to the flexibility. People can move where they would like to live depending on their jobs and life changes. And the program has enjoyed quite a bit of political popularity. It has grown greatly particularly over the last 20 years to become used more often than fixed unit of public housing. And it is located in most communities throughout the nation.

▶ **Kim:** *And I know you have studied on the impact of HCV on people's mobility through variou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The articles are particularly interesting to me. What was the motivation of the studies?*

▶▶ **Greenlee:** My interest in households' mobility basically comes out from the idea of neoclassical

실행되고 있습니다.

▶ 김: 교수님께서서는 다양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들을 통해 HCV 프로그램이 개인의 주거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증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그린리: 주거이동성에 대한 저의 관심은 근본적으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이동성은 개인에게 주택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개인의 삶의 선택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거이동성을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개인의 주거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저의 연구는 사람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과 주거이동 이후 주변 주거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집중하였습니다.

▶ 이: 지금까지 HCV 프로그램은 주거이동성을 향상시켜 저소득가구와 사회적 약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탈피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더 나은 교육환경, 그리고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주거이동성의 효과에 대한 미국 주택정책의 경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그린리: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주거이동성에 대한 미국의 주택바우처 경험은 복잡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Moving to Opportunity'와 같은 대규모 주거지원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어 왔고, 그에 따른 자료들이 축적되어 왔으며, 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주거이동성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종종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주거이동성이 사회적 결속력이나 개인의 인간관계를 끊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는 저소득가구들에게 특별히 그 영향력이 컸습니다. 또한, 인종적 차별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등으로 인해 주거이동성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주택소유주들은 때때로 주택바우처를 제공 받는 세입자를 꺼려하기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소유주들이 세입자가 주거비의 일부분을 주택바우처를 통해 제공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주거이동성이 제한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가구들은 주거지를 옮기는 것보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머물기를 더 선호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적 결속력이나 기존 거주지에 담긴 역사를 보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economics. That mobility should result in people making better life choices, or people choosing better housing and neighborhood, and also should best support their current needs. My interest in mobility comes out from a question of how true is it that people are able to use residential mobility to achieve this individual goal and what are the constraints that prevent people from making the most ideal moves that the economic theory says they should be making. A lot of my research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oices and the people who make it in terms of residential location and how they interface with that community surrounding them once they get there. Also I have studied on a question, how urban development has played a role in support this choice that individuals are making.

▶ **Lee:** *Housing voucher program has been valued for promoting residential mobility to help low-income and minority families move from distressed communities to neighborhoods where they can enjoy safer surroundings, good schools and other services, and better access to employment opportunities. But there are critics who are skeptical about the program. What have you seen through the American experience of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in terms of the mobility aspect?*

▶▶ **Greenlee:** That is a good point. The American experience with the mobility aspect of the program has been mixed. We have seen many cases through federal demonstration programs like the “moving to opportunity” for fair housing demonstration program. The experience shows us that it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e of the things that we have seen is that the expectation of this type of mobility often times does not occur in reality for lots of different reasons. Sometimes, this type of mobility tends to interrupt social ties and connections that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low-income people. In addition, the mobility has also often been constrained by discriminations, either racial discrimination or income discrimination. Landlords, in many cases, choose not to rent to a household who will get the housing voucher because they know that they are going to pay a part of the rent with the voucher.

In some communities, there are still very high various entries for low-income households who want to be a member of the communities. And some cases also show just a program preference. Some households would rather choose to remain in neighborhood because of such as history of community, or the connections with their friends and families.

However, in some cases, this is very successful in helping low-income households to integrate into communities, while they couldn't afford to be in. The mobility has significantly positive

하지만 대다수 사례를 통해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저소득가구들이 스스로 하기 힘든 주거 이동과 거주환경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거이동성은 성인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어린이들에게 더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주거이동성의 향상과 그로 인한 근린효과가 빈부의 대물림을 억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이동성의 향상은 더 나은 교육환경으로의 변화와 정신건강의 발전, 그리고 건강한 사회적 결속력 등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이 성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세대들의 삶의 향상이라는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공지원이 성인들의 주거이동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 최근 한국 정부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바우처 수혜대상자에 비해 그에 따른 공공재원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이 공공지원에 의존하는 가구를 양산하게 되어 또 다른 저소득계층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그린리: 미국의 HCV 프로그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소득계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평균소득 수준 하위 30%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HCV 프로그램의 주거비 지원을 받는 가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혜자 그룹의 연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1만 2천~1만 5천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구의 수는 많지만, 실제로 지원 받는 가구들은 이보다 훨씬 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운 좋게도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당신은 정부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여전히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가구들이 있으며, 때로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제외되는 가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San Francisco, Chicago, 그리고 New York City와 같은 미국의 대도시 지역에서 더 많이 관찰됩니다.

언급한 대로 제한된 예산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택정책의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는 미국의 오랜 정치적 논쟁거리였습니다. 가장 극빈계층 가구만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주거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여 그들이 가난



impacts not only on the lives of adult household members but even more so on children. So this idea that residential mobility and neighborhood effects can help to break intergenerational cycles of poverty, is very powerful. We've seen more promising outcomes for children and youth, in terms of school performance, mental health, social 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We've seen some positive outcomes in terms of short outcomes for adults. But when we looked over longer period time, there was more promising result for kids. So a part of the challenge is how do we get adult to stay within the support of places so that the kids can get the benefits. We are still working to figure out how do we make that happen right now. So all these reasons we've seen are mixed outcomes.

▶ **Kim:** *Korean government is preparing a new housing voucher program for low-income households. But the problem is that how it can serve the huge number of the households within the budget limitation. In addition, there is another worry about that it make more low-income households who are getting rely upon the government support, so that it may more low-income households in the nation.*

▶▶ **Greenlee:** In the US, the program tends to be focus on a very narrow income band. The program is targeting the households that are making below 30% of median income. If you look at the income profiles of households throughout the nation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y tent to be making incomes usually around \$12,000-15,000 per year as a household. It is very low-income households. So we recognized there are lots of needs in the income range, so that the program tends to focus on that very low-income band. And again, if you are lucky to get in the program, you are able to receive assistance that will make housing affordable for you. But the part of challenge is still a large group of people who are either just waiting for the housing assistance or who are ineligible because they make too much, who are still in great needs for housing resources, particularly in some of our large cities in the country, San Francisco and Seattle, Chicago and New York.

So big challenge has been trying to serve very broad populations with limited resources. It costs a lot if you provide the subsidy for the people who have moderate income. And this created many political discussions in the US. Should be help the poorest of the poor who use the program as means to create the safetiness, or should be help people who have more substantial income, who may be able to more easily use the program as to get out of the poverty quickly. So we can return this resource over to people who need it. So far, we have tried to both. We can serve entire group of people with the most needs, but we also than not able to serve a larger member of people who have

으로부터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일까요?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거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미국의 주택정책은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을 병행하여 추진되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당장 지원혜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지원했으며, 어느 정도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가구 또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제한된 예산이었고, 모든 가구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은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여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해결방법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연동하여 HCV 프로그램의 혜택기간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HCV 프로그램의 수혜기간을 제한하는 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수혜가구들은 그들의 삶의 수준이 미래에는 더 나아질 것이며, 이 프로그램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및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이루어진 인터뷰에 따르면, 98%의 사람들이 HCV 프로그램을 그들의 빈곤 탈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 이 프로그램을 떠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 이: 정말 흥미로운 연구주제네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연구는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인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군요. 주제를 바꿔서 토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도시계획 교육시스템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그린리: 도시계획 교육에 관한 저의 연구관심은 새로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교육을 받는지와 그들의 관심분야를 교육시스템이 어떻게 재형성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교육자로서 달성해야 할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떠나버리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교육시스템의 장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심분야를 교육시스템 속에 어떻게 결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관찰해왔습니다. 또한, 2년의 석사교육 기간 이후 그들의 목표와 꿈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들은 도시계획 역량의 수요와 공급에 집중했습니다. 이 연구는 실제 도시계획가들과 계획가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어떤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도시계

higher income but still need the resources. We have not really figured out great solutions to that here.

For my perspective, one solution is more funding for the program, so that we can actually help more people. But, you know it is impossible. The other solution is to integrate with more social resources to the program, as we talk about, to help to shorten the amount of time that households are on the program. One recent proposal in the US has focused on limiting the period of times that household is eligible to use the program of assistance.

I think vast majority of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HCV programs have an expectation that they will try to be better, and will not stay on the program. Most of them have their personal goals. Their choice is not to continue to rely upon this. In my experience working with housing authorities and participants in the program, 98% of the people who I have the interview with convey desires to use the program for short period of time and then leave when they are getting better.

That is similar to other welfare social reform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around other benefits. The idea in there is that we allow people to receive temporarily assistance. But we don't guarantee it for as long as someone might need that assistance. That proposal has gained some contractions. I do worry, however, while this may will cut down and open up the resources for more people who need them. It does not necessarily fix the problems of the household who use the resources and then become ineligible for the assistances.

▶ **Lee:** *This is really interesting story. Your research interest is placed on the inside stories of HCV program and the lives of people who are getting the housing vouchers. I know the one another research interest is about planning education and pedagogy. Can you explain the research topic?*

▶▶ **Greenlee:** My main interest in planning education is an understanding what the motivations and interests are new planning professionals having and how the process of going through the planning education system reshapes those interests that students have. The one of the goals as an educator is to fundamentally transform the ways of the people think about the world. But often times, we've seen some people who lose their motivations and their interests during the changes. So a lot of interest is understanding both how students perceive the benefit of planning educations and then how students blend their own interests in planning with our education system and the process after 2 years later as the students come out ready to be practitioners and what is left of their initial dreams and desires.

Recently, work that I've done has looked at supply and demand for planning skills, trying to understand which skills planning practitioners and the people who employ planners are demanding,

획 교육자들이 도시계획전공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지식과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가로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풀어야 할 사회문제들은 도시계획 교육자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문제들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줍니다. 단순히 이것은 주거문제, 이것은 교통문제라는 식의 단편적인 판단이 아니라 복잡성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도시계획 교육기관들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의 연구가 밝혀낸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 중 하나는 도시계획 교육이 학생들의 커리어 후반에 경험하게 될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 교육이 관리자나 상위 도시계획가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졸업을 하고 실무의 세계로 나가는 학생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들에 대해 그들이 직접 실무의 세계에 뛰어들었을 때 느끼게 될 괴리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신진 계획가로서 실무에 진출하였을 때 당장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이전에 배운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결합할 수 있는 특별한 학습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조금 더 긴 도시계획 학업과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도시계획 전문가와 교육자들로부터 지도 받는 1년 과정의 계획가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에게 당장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하고, 학교에서 배운 높은 레벨의 지식을 접목하는 것을 배웁니다.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의 연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교육시스템은 신진 계획가들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그린리: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의 연구주제는 주택마우처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주거이동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며, 주거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관하여 연구주제를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거이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국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관찰되고 있는 새로운 주거이동 패턴은 이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저는 현재 주택파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하는 사례들에 대해 연구중에 있습니다. 주택파산(residential foreclosure)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큰 이슈로 여겨졌습니

and which skills the planning educators are valuing and working to produce within planning students. Also, the problems that we are asking planning students to address are now far more complex than the types of problem that we have people to engaged in the past. This is due to technology, information, globalization, and many factors that make these problems even more complex to begin with. And so I think the implications of the work that doing in planning education really focus on how do we best train future planners to engage with these problems and the complexity rather than breaking down into this is housing problem, this is transportation problem, how do we deal with these problems integrated in the complexity. I think something that planning education throughout the world has to be better prepare to deal with.

One another things that my research is finding is that at least in the US, planning education tends to focus on higher levels of skills people who use later in their career. It tends to focus on skills are people use as managers and senior professionals. This is good news because we want to train planners to enter leadership positions and to use planning skills to better be able to create changes. But a part of challenge is how do we help new planners that are leaving education and going into practice to understand the link between the higher level of the skill they have now and their career trajectory mainly involve a period of time they are not using the skills or use less of the skills. So the big challenge is now we think about what the best allow us to communicate and to help new planner to bridge the connection in between skills are giving them and the application of those skills there they are most demanded which is in upper level, mid career, and finding jobs. The one of things I can achieve that is actually through a longer period of planning education. It will be through a year of guided practice where students are mentored through the transition into the professions, and right now we don't really offer that very much in the US. We offer internship opportunity, but we don't offer as much guidance around the transitions into the professions. Than I think we could allow people to more easily be able to bridge that gap. So I think that is a tour some of the benefit of this research comes in. It is thinking about how we orient people to professions, how we help them to transition into addressing increasingly more complex problems that planners are being asked to face.

▶ **Lee:** *Lastly, can you tell me about your future plan of your research?*

▶▶ **Greenlee:** As we talked about my research interests focused on housing vouchers and mobility, and the continuous areas that I am looking at, I am extending my research to look at other reasons why people are moving. I am doing more work on a force of the displacement, which is not an issue

다. 따라서 저는 현재 주택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의 주택이동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공공지원을 받았던 가구들이 지원정책을 떠났을 때 그들의 주택이동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해서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의 지역적 관점에서 어떤 요인이 가구의 이동성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쇠퇴도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쇠퇴도시의 가구들이 어느 곳에서 나와서 어느 곳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패턴과 그들이 이동한 이후 생활여건의 변화에 관해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주제들이 향후 제가 지속할 연구과제들입니다.

▶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앤드류 그린리 주요 저서 및 논문

- 
- Greenlee, Andrew J. 2010. Illinois Assisted Housing and Residential Mobility Data Guide: County level fact book and index. Illinois African-American Family Commission.
- \_\_\_\_\_. 2011. A Different Lens: Administrative perspectives on portability in Illinois'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Housing Policy Debate* 21, no. 3: 377-403.
- \_\_\_\_\_. 2014. More than Meets the Market? Landlord Agency in the Illinois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Housing Policy Debate* 24, no. 3: 500-524.
- Greenlee, Andrew J., Mary M. Edwards and Jerry Anthony. 2014. Planning Skills: An examination of supply and local government demand.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Revise and Resubmit.
- Lee, Aujean and Greenlee, Andrew J. 2014. Asian Americans and Foreclosure Risk: The interaction between race and risk. Submitted to *Journal of Urban Affairs*.
- Smith, J., Greenlee, Andrew J., Sharon A. Legenza and Kate Walz. 2010. Are We Home Yet? Creating Real Choice for Housing Choice Voucher Families in Chicago. Illinois Affordable Housing Action and Research Project. UIC Voorhees Center with Sargent Shriver National Poverty Law Center, Housing Action Illinois, and Latino Policy Forum.
- \_\_\_\_\_. 2011. Moving or Moving Up?: Understanding residential mobility for Housing Choice Voucher families in Illinois. Illinois Affordable Housing Action and Research Project. UIC Voorhees Center with Sargent Shriver National Poverty Law Center, Housing Action Illinois, and Latino Policy Forum.
- Wilson, Beverly K. and Greenlee, Andrew J. 2014.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An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of U.S. counties. Submitted to *Urban Studies*.

that we have talked about very often in the US. But it is increasing phenomenon in the US that we've see. So I am doing some research right now on force of displacement due to residential foreclosures, so that people are being evicted from their houses. Foreclosure has been a big issue and there has been almost known what happens after families or individuals experienced the foreclosure. So I am doing some work right now that is looking at what happens in residential trajectories and experiences of households after foreclosure. I am doing similar work that looks at subsidized households, what happens after they leave from the housing subsidizing programs and where they move to and from. And I am also doing some national scale research that is looking at what factors are influencing patterns of residential mobility between regions of the US, particularly looking at shrinking cities. I am focusing on where people are moving from particularly in shrinking cities, where they are moving to out, and whether they are actually better off once they made this migration decisions. So those are the areas where my research is continuing to develop very actively right now.

► *Lee: Thank you for your time!*